

## 9장/ 결혼은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고전7장)

### 오늘의 포인트)

1. 고린도교회는 결혼 문제가 일어났다. 결혼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지 확인해 본다.
2. 바울이 제시한 성경적 결혼관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 II. 바울이 들은 또 다른 고린도교회의 내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 결혼 문제

고린도교회 내에는 결혼문제가 있었는데 한 쪽에선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또 다른 쪽에선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과 당파가 맞물리게 되면 서로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내의 또 다른 한 문제였던 것이다. 바울은 이 결혼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 했다.

### III. 바울이 결혼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결혼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바울은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듣게 된다. 그 내용은?

#### 1. 내적인 이유

- 1) 음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고린도 지역은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다.(2절) 무역도시이기에 많은 배들이 오랫동안 정박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때 그 지역은 성매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고린도 여인이라고 하는 소리는 “난 창녀”이라고 하는 소리와 같은 정도였다. 이 말은 음행이라는 것이 그 사회를 뒤덮고 있었는데 인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음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바울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기를 권했던 것으로 보인다.

- 2) 결혼한 뒤에 분방하는 일이 있었음.(5절)

- 3) 성적인 문제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8절-9절)

- 4) 결혼한 자들 중에는 이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12-13절)

#### 2. 외적인 이유

- 1) 헬라사상의 중심인 이원론 - 그 시대의 만연된 사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에도 결혼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 이런 판단에는 그 시대의 정신이 반드시 반영되어 있다. 앞으로라도 당시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주는 문화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것이 분명하다. 결혼관도, 이혼관도 많이 바뀔 것이다. 성경의 분명한 정신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다.

당시 이원론의 생각은 교회와 사회를 병들게 했는데 영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불멸하다면, 육체는 불결하고 파멸적이라고 보았다.

이원론적인 사고는 두 가지 유형의 극단적인 삶의 행동양식을 가지게 했다.(골 2:20-21; 딤후전 4:3; 엡 5:25-33)

① 육체가 악하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인간은 원래 즐거움을 가져야 하며 행복할 의무가 있는데 육신은 악하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고 영이 행복해야 하는데 그럴 때 육체의 하는 일들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오늘날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해도 인간이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논리이다.

②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모든 육체적 욕망과 활동을 금하여야 된다는 논리이다.

육의 행동을 모두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경우이다. 실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활동을 끊는 사람들이 있고 가르침도 있다. 주로 이단들이 많이 한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삶에서 무서운 생각을 낳게 했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 모든 육체적인 활동을 금하는 자들은 결혼한 사람들을 정죄했고, 인간의 쾌락은 추구하는 자들은 육신의 활동을 너무 제어하면 안 된다는 자유로운 생각을 갖게 했다.

2) 이원론의 두 팽배한 주장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영적인 생활을 위해 결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 즉 결혼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내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결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가?

고린도교회가 당파로 나누어져 있었기에 서로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

#### IV. 바울의 결혼관

##### 1.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

###### 1)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1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는 이 말은 성적관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울은 결혼을 반대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 성경의 정신으로 볼 때도 결혼을 성경은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을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말한다. 실제 바울은 결혼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7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창2:18) - 돕는 배필이다. 서로 도울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

2)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3) 이혼한 여인들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함/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4) 결혼한 자는 서로를 버리지 말라.(10절)

5) 믿지 아니한 자와 결혼 한 자는 그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12절) 이유는?

① 믿지 아니한 사람이 믿는 자로 인해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14절)

② 상대를 구원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16절)

6) 믿지 아니한 자가 갈라서기를 원하면 갈라서라.(15절)

이유는? 구해질 것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7)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25-26절)

이유는? 압박한 환난 때문에

8)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나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38절)

2.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1) 성별된 사람으로서 걸어가라.(고전7:14-15)

바울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음행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하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고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 동시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또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과부가 정욕에 못 이기면 결혼하라고 한다. 결혼한 사람은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를 버리지 말라고 한다.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또 16절에 나오는데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보다 구별되다. 성별되다는 의미이다.

바울은 결혼을 하던지, 아니하던지 모든 것은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 즉

성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그 당시 사회가 음행으로 타락의 길로 갔다.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바울은 보았다. 바울은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를 원했다.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가는 사회와 교회에서 바울은 자신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생각하지만 바울은 과연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한 것이다.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 받은 백성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 2)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특별히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것이 없지만 자신의 의견으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나 금욕적인 생활 때문이 아니라 환난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았기에 신변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들이었다. 목숨을 걸고 신앙하는 그런 당시였기에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혼하게 되면 오는 그 고통은 인간으로 감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바울은 이미 결혼 사람들은 놓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다시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고 했던 것이다.

결국 뒤의 구절 또한 모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보다 더 성도를 아끼는 바울의 마음이었다. 이것은 곧 생명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다윗은 단순히 결혼이냐? 이혼이냐? 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아픔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

## V. 결혼에 대한 질문들 : 바울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이 어떻게 결혼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고전7:25)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이 없는데 성경에 기록했다면 과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어떻게 바울이 주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전7:40)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힘썼다.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말씀과 행동이다.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보면 말이 먼저이고 행동이 뒤에 따른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힘

썼다. 그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 것이다.

## VI. 오늘의 적용

1. 우리의 시대에 결혼관이 많이 무너졌다.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 선택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결단함으로 가정과 자신과 삶을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지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삶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